

靑, 가상화폐 규제 “거래투명화가 우선”

국민청원 답변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거래실명제 도입

청와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청원에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한달간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와 관련,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암호

화폐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등 3가지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홍 실장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라며 “정부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심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화폐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비합법적이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

정에서 나타났는데 이에 정부가 지난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글로벌 논의 동향과 기술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암호화폐 과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어 곧 암호화폐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

안, 의료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안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면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시기상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거에서 송능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신 전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북 초청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이냐는 관측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메인프레스센터(MPC)를 방문해 올림픽을 취재하는 국내외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한반도에 고조됐던 긴장이 완화되고 평창올림픽이 안전한 올림픽으로 되는데 기여했다”며 “남북 단일팀과 공동 입장 및 응원 등이 세계인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남북대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북한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지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돕는 권익보호위원회 활동 ‘양성’

행정안전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충 해결과 권익을 대변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는 자원봉사 분야의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원봉사자 33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순히 회의에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봉사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한다.

이들위해 권익위원들은 매일 오전 10시 조직위원회(자원봉사부) 관계자와 함께 전날 고충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점검한다.

행안부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부겸 장관이 평창에서 일일자원봉사활동을 펼친데 이어 설날인 16일에는 심보균 차관이 올림픽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응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올지마라, 그래도 하나가 됐잖아” 18일 오후 강원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순위결정전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최지연 선수가 김향미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5만건 돌파... 상담 확대

고령자 상담신청 대행 · 대규모 세금관련 수요 발생 경우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건을 돌파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2016년 6월부터 경제적 이유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한 세무사들이 국제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지난해말까지 전화상담 3만8086건, 방문상담 1만3696건, 팩스·전자우편상담 684건을 각각 기록했다.

재능기부를 한 마을세무사도 현재 1132명에서 올해는 1371명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특히 생활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올해부터 주민의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자들의 상담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기간 등 대규모 세금관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집중상담을 원하는 장소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남북 적십자, 5개월간 접촉... 이산가족 생사 협의

남북한 적십자사는 작년 가을 이래 5개월 동안 접촉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교도 통신과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날 남북 군사경계선에 인접한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경서 회장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조선적십자회, 국제적십자·적십자사 연맹(IFRC)과 3자간 접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북한 측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작업이 연내로 최소한 200명분 정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월1일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국과 대화를 거부해온 자세를 바꿔 남북 회담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인도적인 문제에선 작년 가을부터 물밑에서 남북 사이에 접촉해온 셈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망향경모제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면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은 채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獨외무 “평창올림픽,북핵 긴장에 일시적 제동”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극도의 긴장에 단지 일시적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제54차 민선안보회의에서 “전 세계가 연초 여러 곳에서 안보위기와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위와 같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위협에 맞서는데도 양측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